



정신 좀 차립시다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생명 있는 것은 모두 자기 개성과 주체성이 있다. 역사상 우리 민족은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과 지배 아래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아직도 사대주의 근성이 남아있다. 이를 이용한 권력층의 아만심에 찬 횡포로 선량한 국민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전히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난 지 50여 년, 아직도 친일의 여죄는 청산되지 못하고 항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민족의 시련은 모두가 지배계급의 횡포 때문이었다. 일본의 지배 하에서 겨우 벗어나자 미국이 점령하여 정치·군사·경제·교육·문화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는 엄연히 하나의 주권국가인데도 말이다. 우리 민족은 한 많은 시련 속에서도 참으로 끈질긴 전통문화와 민족의 긍지를 계승해 오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어버린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아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남에게 예속되거나 남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남을 억압하거나 남의 주권을 침탈해도 안 된다. 우리 민족이 열강의 틈에서 전통문화의 긍지를 고수해 오고 있는 것도 1600여 년 형성되어 온 불교적 정신문화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참으로 참담한 사건이 생겨 국민을 대단히 실망스럽게 하고 있다. 다름 아닌 달라이 라마의 방한 문제다. 달라이 라마가 왜 한국에만 오지 못하는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중국의 국무원 종교국장이 한국을 다녀갔다. 방한 목적이 우리측 정부에게 달라이 라마가 한국에 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들이 대체 무엇이길래 남의 주권국가에 와서 누구는 이 땅에 오면 안 되고 누구는 된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편짜기 좋아하는 자들은 달라이라마가 오면 마치 한국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망할 것 같이 그들의 편들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정녕 이 나라의 미래는 생각지 않는다. 단지, 사랑 받아 먹기에만 바쁘다. 동포여러분! 정말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립시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요즘은 신문을 펼치는 것이 실로 짜증스럽다. 신문이 하루를 상쾌하게 출발시키는 청량제라기 보다는 하루의 시작을 우울하게 만드는 전염병균처럼 느껴진다. 이런 우울함이 젖어 있

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고 싶다고 한다.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들고 살맛나게 하는 것은 엔돌핀이라고 한다. 그런데 엔돌핀이 엔돌핀보다 수십배 강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감동할 때 나오는 것

아들 진우군이 자신의 간을 이식하겠다고 나섰다. 이식수술은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후 11월말에 하기로 날짜를 잡았다. 그러나 백병철택의 상태는 점점 악화 되어 11월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아버지는 수능시험을 앞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앞길 막힌다고 극구 수술을 거부하였다. 아들 진우군은 수능시험이야 또

은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고 싶다고 한다.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들고 살맛나게 하는 것은 엔돌핀이라고 한다. 그런데 엔돌핀이 엔돌핀보다 수십배 강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감동할 때 나오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니라자장에서 육체적 고행을 그만 두신 것은 깨달음이 초인적 능력을 얻기 위한 차려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이 깨달음이 아닐까? 인간을 감동시키는 일이 바로 깨달음의 본 모습이 아니겠는가?

유교의 효는 자식이 부모를 향한 일방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불교에서의 효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보은의 뜻이 강하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자애가 자식에게는 부모를 향한 봉양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도리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연기법적으로 이해 되어진다. 백진우군의 미담은 감동의 연기법이다. 이 감동으로 모든 사람을 나의 부모로 알고 공경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고개를 숙인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최종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는 초가을의 문턱에 가슴을 뭉클하게 감동시킨 미담이 있다. 감동을 자아내는 백진우군의 이야기다. 그는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수

부터 투병이 시작되었다. 그 후 2년여 동안 발작과 응급실행 그리고 입원의 반복이 계속되었다. 부인은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백병으로 노력하였다. 집까지 팔아 치료비로 충당했다. 유행해 초 그에게는 간이식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누가 그에게 간을 떼어 줄 수 있겠는가? 내 몸을 떼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면 되지만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혼수에 빠진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간을 떼어 아버지의 몸속으로 이식하게 하였다. 12시간이 걸리는 긴 수술이었다. 배꼽에서 멍까지 다시 배꼽에서 열구리에 걸린 50cm의 긴 흉터를 남기는 대수술이었다. 감동의 드라마이다. 수술을 받은 두 사람 모두 회복을 잘 하고 있다고 한다. 곧 건강을 되찾으면 두 사람

르몬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불치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이기보다 이 감동호르몬의 초월적인 작용으로 병을 낮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적의 가르침이 아니다. 신비한 힘을 불교에서 기대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을 차려사로

열린마당 화장문화 정착방안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화장률이 91년 17.8%에서 2000년 33.7%로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화장률은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례문화개선운동본부는 16일 '장

열린마당

열린마당

열린마당

열린마당

열린마당

열린마당

열린마당

열린마당

열린마당

열린마당

김태복(중부대 사회학부 교수)



자기 땅이라고 함부로 조성된 불법 호화분묘, 사후관리 소홀로 방치된 무연고 묘지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대상이다. 조상숭배 의식

사람이 생존하는데 '생활 공간'이 필요하듯 죽은 자에게는 '주검의 공간'이 필요하다. 좁은 땅덩어리를 가진 한국은 '주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장장·공설납골당·납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당 지자체의 홍보와 국민들의 개혁운동도 하루 바빠 실천되어야 한다. 납골묘 전시회 등을 통한 홍보, 전국 묘지현황 파악 및 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 법안묘지 관리비 현실화 방안 강구 등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장의업계의 영세성과 폐쇄성을 지양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중수묘 묘지에서 보듯이 인접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운영하는 장묘 관련 시설 확충, 정부·지자체



지의 국토장식, 자연환경 훼손, 무연고 분묘 발생, 묘지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바람직한 화장문화와 납골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

고덕기(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사 관습은 화장보다 매장 위주의 장례 방식을 선호해 왔다. 이는 우리가 유교의 핵심이념인 효사상 및 조상숭배 사상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묘

치단체들은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화장장 공급이 부족하고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인구당 화장로 수가 일본의 경우 10만명당 6기 기준인 반면, 서울의 경우 1천4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화장로는 16기에 불과하다. 또한 화장로 및 관련시설이 크게 노후화돼 협소한 줄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도 시정해야 할 사항이다. 화장 관련 종사자도 전문성이 결여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자세를 찾기 어렵다. 화장장과 납골시설이 혐오시설로 알려

저 주민들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것도 화장문화 개선을 위한 걸림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인 대통령, 국회의원, 종교지도자들이 숭순수범해 화장을 장려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화장시설을 현대화, 리모델링하는 한편 새로운 최첨단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화장장을 단순히 화장만 하는 장소가 아닌 보다 친밀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묘관련법령 현실맞게 개정을

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무연고 묘지가 현재 800여만기 이상 존재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묘지들은 주거공간 인접지역에 위치한 상조근접성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의 태부족, 전국에 산재한 공동묘지의 방치, 잘못된 풍수지리 관행, 장묘업계의 영세성과 폐쇄성 등도 장묘문화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 장묘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실천

의 투자재원 확충 및 민자유치 등도 한분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묘지문제의 해결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우리의 전통적인 효사상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우선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지속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장묘관습도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점에서 조성되는 묘지 및 장묘 관련시설만이라도 적법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 건설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홍보·교육강화, 지도층 수범보여야

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화장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매장과 화장에 대한 선호비율은 약 6: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구밀도가 비슷한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낙후된 편에 속한다.

화장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장에 대한 인식 및 홍보부족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매장을 선호하는 습관이 뿌리깊게 남아 있다. 특히 중노년층에는 화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화장에 대한 홍보는 몇몇 시민단체만이 전개할 뿐 정부 및 지방자

정 주민들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것도 화장문화 개선을 위한 걸림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인 대통령, 국회의원, 종교지도자들이 숭순수범해 화장을 장려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화장시설을 현대화, 리모델링하는 한편 새로운 최첨단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화장장을 단순히 화장만 하는 장소가 아닌 보다 친밀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가연령



조계종이 최근 출가자 연령 제한 법조항을 5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불교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40

"별도법 필요하다" 82.3%

세 이상의, 늦은 발심자에게 출가 기회를 줄 수 있는 별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질문에 응답자 85명 가운데 70명(82.3%)이 필요하다고, 15명(17.7%)이 필요없다고 답변했다. 또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좋냐는 질문에는 53명(74.7%)이 엄격한 특별심사를 통한 예외적 출가의 허용, 12명(16.9%)이 종무행정 등을 관장하는 전문 계층으로 수용, 6명(8.4%)이 기타라고 응답했다. 김두식 기자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研究會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정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중앙철학과 건강관리 강사

만리사주의 좋은 점

사주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합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 어렵습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시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적적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점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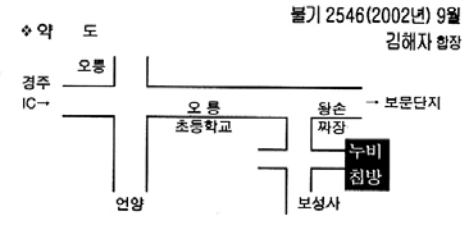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문의: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도서출판 한국음악연구원

손누비 공개 강좌 안내

귀의 상보하음과 중요유형은혜재 107호 누비장 김재희 선생님의 공방에서는 이번 10월에 승복조끼를 시작으로 승복 손누비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다기오는 겨울을 대비하여 따뜻한 손누비 옷이나 가지고 싶은 분들, 정성을 다하여 존경하는 스님에게 보시하시고 싶은 보살님들, 단순한 누비작업을 통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고 싶으신 분들, 화두쌍수의 의미를 두고 누비삼매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누비 강좌에 오셔서 뜻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2002년 10월 2일 ~ 10월 5일(4회 연속)
◇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까지
◇ 대 양 : 10월 2일 - 일반신도 10월 3일 - 일반신도 10월 4일 - 비구스님 10월 5일 - 비구스님
◇ 장 소 : 경북 경주시 탈동 637-1번지 중요유형은혜재 107호 누비장 김재희 누비공방
◇ 참가인원 : 아부 30명
◇ 참가비용 : 월급-승복입액만 명주, 안금-복조끼 액액만 명주
◇ 재료비 : 소 - 210,000, 중 - 235,000, 대 - 260,000
◇ 식 대 : 10,000원
◇ 모집기간 : 2002년 9월 31일까지 연속형 접수
◇ 계약번호 : 농업 749-02-456047 김 재 희 자세한 내용은 경주 기공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4-775-2631, e-mail : nubuy107@yahoo.co.kr)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자기의 윤택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약용,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수맥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윤택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들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 의 수맥·지자기·지전류 유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살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윤택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Advertisement for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featuring '五色광채' and '운림佛字체'.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book, the author's background,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Korea Art Gallery.